

『東醫寶鑑』에 나타난 茶의 醫學的 運用

김종오, 차웅석, 김남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Abstract

The medical use of tea shown in DongUiBoGam

Kim Jong Oh, Kim Nam Il, Cha Wung Seok

*Dept.of Oriental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In this paper, the types of tea mentioned in DongUiBoGam and the usage of tea were studied under these four main themes: tea as a folk medicine, types of tea, various uses, contraindication of tea. Tea used in mid Chosun. medicine, including in DongUiBoGam, was folk medicine. DongUiBoGam specialized the use of tea according to type. Also, it viewed tea as a medicinal ingredient that could exhaust the patient's EumBlood.

I. 序論

차문화가 보급되고 차의 의학적 효능이 알려지면서 차를 음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인 것으로 한국에서도 차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때문에 음료, 건강식품, 의약품 등 여러 형태로 차에 대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의학에서 차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차의 성분분석과 그것의 작용기전을 밝히는 연구¹⁾와 차나 차 복합방을 실험동물에 투여해서 결과를 얻는 실험적 연구²⁾가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차의 효능과 유효성분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다. 하지만 한약재로써 차의 역할을 밝히고 한의학적 활용도를 높이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韓醫學에서 차는 性微寒 味甘苦無毒³⁾한 성질을 가진 약재이다. 오랜 기간 한의학적인 기준에 따라 활용되어 오면서 차의 성미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효능 뿐 아니라 飲茶의 주의점과 금기 등의 세세한 부분까지 醫書에 기록 되어 있다. 이에 논자는 의서에 활용된 차의 의사학적 연구가 차의 한의학적 활용도를 높이고 음료로써 飲茶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차는 한의학에서 가장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된 약재이기도 하다. 처방 구성 약재로는 물론, 丸·散劑를 복용하는 용매로 사용된 경우, 찜거나 가루로 내어 외용하는 경우, 丸劑의 반죽에 용매로 사용되는 경우, 丸의 겉에 입히는 가루로 사용된 경우,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경우……. 심지어는 “茶”字를 기둥에 붙여 벌레를 쫓는 데에 활용한 경우까지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한의학에서 차는 대부분 복용하는 용도로만 쓰이고 있으며 그나마도 사용량이 줄어들어 사용하는 한의원은 소수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차만의 문제는 아니다. 활용빈도가 줄어들고 있는 한약재들이 적지 않으며 약재의 활용방법도 복용하는 용도가 전부가 되어가고 있다. 때문에 차의 다양한 용법을 고찰하는 것은 한약재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차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면서 연구의 대상을 ‘『東醫寶鑑』의 차’로 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東醫寶鑑』은 조선중기 이전에 축적된 의학지식을 집대성하고 있어 내용이 대표성을 지닐 수 있다. 둘째, 『東醫寶鑑』은 당시 조선의 실정에 맞추어 저술되어 지역과 시대에 따라 성미와 사용하는 목적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논자는 『東醫寶鑑』에 활용된 차의 종류와 용법을 분석함으로써 朝鮮中期醫學에서 차의 활용 방법과 활용 범위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당시 土產茶가 의학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차의 활용이 종류에 따라 분화

1) 진선두, 『綠茶의 주성분인 Epigallocatechin의 抗癌 활성과 Apoptosis 기전에 관한 分子生物學적 연구』(경산대학교 한의과대학 박사학위논문, 2000, 8)

2) 전성하, 『高血壓 및 高脂血症에 대한 川芎茶調散의 실험적 연구』(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석사학위논문, 1997, 2)

주승균, 『川芎茶調散의 진통 효과 및 작용 기전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2)

조동일·김성훈, 『영지(靈芝), 홍삼(紅蔘), 녹차(綠茶) 복합방이 어혈(瘀血)병태모형에 미치는 영향』(대한동의병리학회)

金京南, 『綠茶가 肥滿 유도 백서의 體重 및 脂質 代謝에 미치는 영향』(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2) 趙東逸, 『靈芝, 紅蔘, 綠茶 복합방이 瘀血 병태 모형에 미치는 영향』(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8)

이영중·안덕균, 『다엽(茶葉)이 진통작용과 Pentobarbital Sodium 수면시간에 미치는 영향』(대한한의학회)

3) 許浚, 『東醫寶鑑』湯液編 卷之三 木部 苦茶 (남산당 1975)

되어 아주 세밀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丸·散劑를 복용하는 용도, 外用하는 용도 등 현재는 잘 알려지지 않은 쓰임도 발견하게 되어 이에 본 논문을 통해 보고 한다.

II. 本論

1. 鄉藥으로 활용된 茶

1) 한국 茶재배와 茶교역의 역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차재배 기록은 신라 興德王 때 唐에 사신으로 갔던 大廉이 차씨를 가져와 지리산에 심은 것으로 829년의 일이다⁴⁾. 이후 차의 재배지는 점점 늘어나 『世宗實錄』의 [地理志] 古茶所⁵⁾에는 고려시대에 차를 만들어 공물로 바치던 茶所 19개 지역이 기록되어 있으며 세종 당시에 차가 土貢物인 곳이 32개 군현이고 토산품이 차인 곳이 3곳으로 되어 있다. 또한 조선 중기 1530년(中宗 25)에 완성된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경상도(慶尙道)의 10곳, 전라도(全羅道)의 25곳⁶⁾에서 차가 토산물 생산된다는 기록이 되어 있다.

차의 생산지가 이렇게 많았다는 사실은 土產茶 생산규모가 대단히 많았음을 의미한다. 특히 생산된 차의 상당량이 공물로 바쳐진 것을 알 수 있다. 이 차들은 예식이나 임금의 하사품, 사신에게 주는 예물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차의 쓰임이 많아지자 고려시대에 궁중의 의례적인 차일을 전달하는 茶房이 생겨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다. 이 사실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국가에서 사용하는 차는 대부분 토산차였으며 수입된 것이 있더라도 아주 일부분이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高麗史』에는 고려사신이 송나라에서 龍鳳茶를 받아온 기록과 함께 거란·금나라·원나라에 우리 차를 증정한 일을 적고 있다⁷⁾. 특히 거란에 보낸 차는 “腦原茶”라는 이름까지 적혀 있는데 이는 고려시대에 생산되었던 우리의 土產茶⁸⁾이다. 이미 고려시대에 잉여 土

4) 金富軾, 『元本 三國史記』 『三國史記』 제10권, 新羅本紀 제10 흥덕왕 3년 12월 (한길사, 1998. 8.)

“入唐迴使大廉持茶種子來 王使植智異山”

이 내용의 뒤에는 선덕여왕(632~647) 때부터 차가 있었다는 기록(茶自善德王時有之 至於此盛焉)이 함께 들어 있다. 이를 근거로 7세기에 이미 土產茶가 있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5) 『世宗實錄』의 [地理志]에는 조선시대 당시 차를 공납하던 茶所와 구분해서 고려시대의 茶所를 古茶所라 기록하고 있다.

6) 『新增東國輿地勝覽』(민족문화추진회 고전국역총서DB 민족문화추진회)

경상도(慶尙道)의 蔚山郡, 梁山郡, 密陽都護府, 晉州牧, 昆陽郡, 河東縣, 山陰縣, 丹城縣, 固城縣, 鎭海縣과 전라도(全羅道)의 古阜郡, 興德縣, 沃溝縣, 泰仁縣, 羅州牧, 光山縣, 靈光郡, 咸平縣, 高敞縣, 珍原縣, 茂長縣, 南平縣, 務安縣, 康津縣, 海南縣, 潭陽都護府, 順昌郡, 順天都護府, 樂安郡, 寶城郡, 綾城縣, 光陽縣, 興陽縣, 同福縣, 和順縣(목차 순)

7) 金明培, 『韓中茶文化交流攷』(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제3권 제2호, 1993. 12.)

産茶를 중국과 交易한 것이다.

『朝鮮王朝實錄』에 따르면 세종 원년부터 32년까지 세종대왕이 여러 명의 명나라 사신들에게 차와 茶도구를 하사하고 중국 사신이 체류 중에는 정사와 부사에게 날마다 雀舌茶 10냥을 지급하였다. 또한 병자호란의 결과로 조선은 청나라에 3년에 걸쳐서 해마다 1천포의 차를 보냈다⁹⁾. 조선에서 차를 수출한 양을 알 수는 없지만 조선의 차가 중국까지 알려졌으며 차를 戰勝의 조건으로 요구할 만큼 귀한 조선을 대표 토산물임을 알 수 있다.

2) 鄉藥으로 활용된 차의 역사

『醫方類聚』나 『鄉藥集成方』, 『東醫寶鑑』 등 조선시대 의서에서 ‘의료용 차’가 일반적인 차와 다른 점에 대해 따로 언급한 내용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으며, 음료로써의 차를 언급할 때에도 그냥 茶로 쓰고 있다. 오히려 의서에서 약재를 법제하거나 환·산제를 만들 때 “~如茶法”이라 하여 차 만드는 방법과 같이 하라는 지시를 찾아볼 수 있다¹⁰⁾. 그러므로 약재로 사용된 차는 일상적으로 飲用되는 차와 만드는 방법에 있어 큰 차이는 없다고 보인다. 즉, ‘藥材로써의 차’는 “의료용 목적으로 사용된 차”라고 규정할 수 있다.

강의 연구¹¹⁾에 따르면 ‘鄉藥’은 “각 시기에 따라 한민족의 국가 영토(高麗, 朝鮮 등) 안에서 생산되거나 재배 가능한 藥材”, ‘鄉藥醫書’는 “향약 및 향약의학을 기술하고 있는 의서”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리지에 기록된 토산물들은 鄉藥의 범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적어도 토산차가 재배되기 시작한 829년 이후 의학적인 용도로 사용된 차는 향약의 범주에 포함된다.

현존하는 우리나라 最古의 醫書인 『鄉藥救急方』은 13세기 초에 간행되었다고 추정된다¹²⁾. 『鄉藥救急方』의 [方中鄉藥■草部]에는 향약 180종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茶는 항목에 없다. 하지만 [大便不通]과 [小便不通]조문에 散劑 처방을 茶淸에 복용하는 내용이 나오고 [方中鄉藥■草部]에 威靈仙과의 배오금기로 茶가 언급 된다¹³⁾.

8) 李崇寧, 『韓國茶의 文獻學的 研究』(서울대학교출판사, 1982.)

9) 金明培, 『韓中茶文化交流』(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제3권 제2호, 1993. 12.)

10) 『醫方類聚』 권183 痔漏門 是齋醫方 肘后方 [治患五痔及脫肛諸方] : “又治野鷄痔, 下血腸風明目方: 嫩槐葉壹斤, 蒸如造茶法, 取葉礮作末, 如茶法, 煎呷之.” 어린 괴엽(嫩槐葉)을 법제하는 과정에서 차 만드는 방법으로 찌고(蒸如造茶法), 입을 모아 맷돌에 갈아서 차와 같은 방법으로 마신다(取葉礮作末, 如茶法, 煎呷之)는 내용이다.

『醫方類聚』 권89 諸氣門四 玉機微義 諸氣食治 [食醫心鑑] : “治胸中伏熱, 下氣消痰化食, 去醋咽, 橘皮湯方: 右以橘皮一兩, 去瓢微炒爲末, 如茶法, 薄煎啜之.” 귤피 내부를 제거하고 차와 같은 방법(如茶法)으로 약간 볶아 가루를 만든다(微炒爲末)는 내용이다.

11) 姜延錫, 『鄉藥集成方の 本草 분석을 통한 朝鮮前期 鄉藥醫學 연구』,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3. 2.

12) 『鄉藥救急方』 해제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 한국한의학연구원)

“몽고(蒙古)의 침입을 받아 고려의 조정이 강화도로 천도했을 때 대장도감(大藏都監)에서 간행한 것이다. 대장도감은 고려 1236년(고종 23)에 설치한 관서(官署)이므로 13세기 전반에 간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13) 『鄉藥救急方』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 한국한의학연구원)

강의 연구에 따르면 조선초기 의서인 『鄉藥集成方』의 [鄉藥本草]에는 국내에서 자생하거나 재배된 약재만이 수록되어 있는데 『鄉藥集成方』에 빠져 있는 대표적인 수입약재로 전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甘草, 傷寒論에 많이 쓰이는 桂, 麻黃, 附子, 猪苓, 淸熱藥인 黃連, 連翹, 活血祛瘀藥인 乳香, 沒藥, 五靈脂, 蘇方木 등을 들고 있다¹⁴⁾.

위의 약재들을 『鄉藥救急方』에서 찾아 본 결과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 이로 미루어 볼 때 『鄉藥救急方』은 鄉藥으로 구성된 처방만을 수록한 서적으로 볼 수 있다. 鄉藥醫書들이 우리나라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간행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鄉藥救急方』에 사용된 차는 土產物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13세기 초 이전부터 토산차가 의학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鄉藥集成方』[鄉藥本草]의 木部中品에는 “茗苦木茶茗¹⁵⁾”이라는 이름으로 차가 수록되어 있다. 차의 쓰임도 다양해져서 처방의 구성 약재로 쓰인 경우, 丸·散劑를 복용하는데 차를 이용한 경우, 차나 차가루(茶末)을 外用하는 경우 등 차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차의 일반적인 금기와 배오금기까지도 언급이 되어 있어 향약으로써의 차에 대한 연구 경험이 상당히 많이 축적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東醫寶鑑』의 茶

『東醫寶鑑』의 [集例]에는 저자가 처방과 약재를 기록하면서 당시 조선의 상황과 실용성을 매우 중요시하고 가진 것 없는 백성들도 쓸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이 잘 나타나 있다¹⁶⁾. 뿐만 아니라 다른 의서의 내용을 인용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의학이론, 처방의 적응증, 약물의 수취법, 처방의 제조와 복용법, 처방에 대한 수증가감법 등에서 당시 조선의 정황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부분들을 모두 생략하였다¹⁷⁾.

이러한 노력은 麗末鮮初의 鄉藥의 발전과 맥을 같이한다. 특히 [湯液編]에서 鄉藥과 唐藥을 구별하여 기록했는데¹⁸⁾, 이러한 명확한 구분은 지리지의 토산물에 대한 조사가 『新

[大便不通] 又郁李人■浸 去皮尖微炒細搗爲末以溫湯服三錢不下更加服 又方牽牛子名朝■暮落花生子 細末熱茶淸調三錢服之良

[小便不通] …… 又方牽牛子出上 細末 熱茶淸調二錢服

[方中鄉藥目草部] 威靈仙俗云車衣藻味苦溫無毒九月採陰乾以丙丁戊己日採 忌茶

14) 姜延錫, 『鄉藥集成方』의 本草 분석을 통한 朝鮮前期 鄉藥醫學 연구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3. 2)

15) 『證類本草』에 차는 “茗苦木茶”로 표기되어 있다.

16) 許浚, 『東醫寶鑑』 (남산당, 1975)

[集例] 古人藥方所入之材兩數太多辛難備用局防一劑之數尤多貧寒之家何以辦此. (고인들이 처방에 넣은 약재의 양과 수가 너무 많아 결국 모두 마련해 쓰기가 어렵고, 『국방』의 처방은 1첩에 들어가는 약의 수가 더욱 많으니 가난한 집에서 어찌 이것을 감당하겠습니까?)

17) 梁榮埜, 『萬病回春』이 『東醫寶鑑』에 끼친 影響에 대한 연구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8. 2)

18) 許浚, 『東醫寶鑑』 (남산당, 1975)

[集例] …… 且書唐藥鄉藥則書鄉名與產地及採取時月陰陽乾正之法可易備用而無遠求難得之弊矣.(또 중국의 약과 우리나라의 약을 기록했는데 鄉藥의 경우에는 鄉名·산지·채취시기·음건·양건의 방법을 기재

增東國輿地勝覽』등에서 마무리 되고, 향약에 대한 연구가 『鄉藥集成方』으로 집대성되었으며, 이후 鄉藥 재배의 노력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湯液編]의 苦茶 조문은 “작설차”라는 향약명이 적혀져 있고 “唐”字가 없는 분명한 鄉藥으로 기록되어 있다.

①[苦茶] 작설차

性微寒(一云冷)味甘苦無毒 下氣消宿食 清頭目 利小便 止消渴 令人少睡 又解炙炒毒.

- 樹小似梔子冬生葉早採爲茶晚採爲茗 其名有五 一曰茶 二曰檟 三曰藪 四曰茗 五曰芽 古人謂其芽爲雀舌 麥穎言 其至嫩卽臘茶是也 採嫩芽搗作餅並得火良.
- 茗或曰芽葉老者也.<本草>
- 入手足厥陰經飲之宜熱冷則聚痰久服去人脂令人瘦.<入門>
- ②蒙山茶 性溫治病最好. 宜興茶 陸安茶 東白山茶 神華山茶 龍井茶 閩臘茶 蜀苦茶 寶慶茶 廬山雲霧茶 俱以味佳得名.
- 一人好食燒鵝不輟醫者謂其必生內癰後卒不病訪知此人每夜必啜涼茶一椀此其解毒<食物>

표 1 『東醫寶鑑』湯液篇의 苦茶조문

①에서 ‘唐’자가 없고 향약명이 ‘작설차’라고 적힌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②에서 국내산지를 소개하고 있는 다른 鄉藥과는 달리 蒙山茶가 性溫하여 병을 고치는 데 가장 좋고 宜興茶, 陸安茶 등 중국의 차들이 유명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내용은 『食物本草』¹⁹⁾에서 인용이 되었는데 『東醫寶鑑』에서 이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이러한 중국차들도 일부가 조선에 유통이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植物本草』문장에서 “지방에서 생산되는 것이 각각 마땅한 바가 있다. 性味가 또한 조금 밖에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土產各有所宜 性味亦有少異)”는 부분을 생략하고 인용하였다. 조선에서 생산되는 차들이 약재로 주로 사용되고 있어서 중국처럼 기후와 토질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東醫寶鑑』에 활용된 차의 종류

1) 『東醫寶鑑』에 사용된 차는 細茶와 茗으로 나눌 수 있다

『東醫寶鑑』포괄적으로 ‘茶’라고 쓰인 외에 細茶, 臘茶, 苦茶, 芽茶(茶芽), 雀舌茶, 好茶, 春茶, 建茶, 乾茶, 茗, 老茶(老茶葉)와 같은 종류의 이름으로 사용 된다. 차의 금기의 경우(忌茶 등)나 술이나 물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茶酒任下 등)와 같이 포괄적으로 차를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이러한 형태로 쓰인다. 사용빈도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하였으니 갖추어 쓰기에 편리하여 멀리서 구하거나 얻기 어려운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¹⁹⁾ 盧和, 『食物本草』, 권7 味類 茶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 한국한의학연구원)

後代諸家及茶經茶譜茶錄等書 所云近世尚用如蒙山茶 性溫 治病 因以名顯. 其它曰宜興茶 陸安茶 東白山茶 神華山茶 龍井茶 閩臘茶 蜀苦茶 寶慶茶 廬山雲霧茶 俱以味佳而列名品. 土產各有所宜 性味亦有少異.

細茶	臘茶	茶芽	芽茶	細茶芽	雀舌茶	春茶	建茶	茗	老茶
14회	9회	3회	2회	1회	1회	1회	1회	9회	1회

표 2 『東醫寶鑑』에 사용된 차의 이름과 출현 횟수

이들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東醫寶鑑』에서는 차를 크게 ① 어린잎으로 만든 차, ② 늙은 잎으로 만든 차 두 가지로 분류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은 필요한 곳에만 약효가 특화되어 있다. 이러한 분류는 차가 의학적으로 이용되어 오면서 쓰임이 세밀해 진 것으로 차를 더 잘 활용하기위한 연구의 결과물이다.

① 어린 찻잎으로 만든 차 - 細茶

細茶, 臘茶, 芽茶(茶芽·細茶芽), 雀舌茶, 春茶, 好茶는 모두 어린 찻잎으로 만든 상등품 차를 지칭한다. 각각의 이름을 풀어 보았다.

차의 이름	이름의 뜻
細茶	가는 잎으로 만든 차
臘茶	납월(음력 12월)에 딴 차 즉 겨울이 채 다가기도 전에 채취한 아주 어린 찻잎으로 만든 차
芽茶(茶芽·細茶芽)	새싹으로 돌아나는 찻잎으로 만든 차
雀舌茶	참새의 혀처럼 생긴 차
春茶	봄에 딴 차
好茶	품질이 좋은 차

표 3 어린잎으로 만든 차

14회로 가장 많이 쓰인 細茶와 芽茶(茶芽·細茶芽)는 가는 새싹으로 만든 차라는 뜻으로 서로 통한다. 『東醫寶鑑』 解毒門에 ‘細茶芽는 卽雀舌茶’²⁰⁾라고 하였다. 또한 臘茶²¹⁾이라는 이름의 처방에는 ‘臘茶’가 아니라 ‘芽茶’가 처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東醫寶鑑』의 저자는 細茶, 臘茶, 芽茶(茶芽·細茶芽), 雀舌茶를 모두 같은 차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차는 가는 잎으로 만든 것일수록 좋은 차로 여겼으므로 好茶 역시 같은 어린잎 차로 볼 수 있겠다.

春茶는 채취한 시기를 차의 이름으로 삼은 것이다. 봄에 새로 핀 잎이 계절이 지나면서 늙은 잎으로 변하므로 春茶도 어린잎차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20) [菌蕈毒] 中蕈毒吐下不止 細茶芽(卽雀舌茶)爲末 新汲水調服神效.

『本草衍義』에도 芽茶가 곧 ‘雀舌’로 불리우며 上品이라는 기록이 있다. (然古人謂其芽爲雀舌, 麥類, 言其至嫩也. 又有新芽一發便長寸餘, 微粗如針. 惟芽長爲上品)

21) [臘茶飲] 芽茶 附子 白芷各一錢 細辛 川芎 防風 羌活 荊芥各半錢 右剉作一貼入鹽一撮水煎服

② 늙은 찻잎으로 만든 차 - 茗

茗은 湯液編의 [苦茶] 조문의 3회를 포함하여 총 9회, 菴은 湯液編에만 2회 언급되었다. [苦茶] 조문에는 『茶經』을 인용해 차의 다섯 가지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茗이 포함되어 있다²²⁾. 이와 같이茗은 ‘일반적인 차’를 표현하는 차의 異名으로 쓰인 예도 많이 있다²³⁾. 『本草衍義』 등의 본초서에도 茗·苦木茶를 “今茶也 其文有陸羽茶經”이라고 하여 茗이 茶 대신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湯液 [苦茶] 其名有五 一曰茶 二曰檜 三曰藪 四曰茗 五曰菴
 水 [井華水] 每日取以烹春茗 而爲清利頭目最佳

표 4 『東醫寶鑑』에서 茗이 茶의 異名으로 사용된 경우

하지만 唐代에 ‘茶’字가 쓰이기 시작한 이후로 醫書에서 ‘茗’은 점점 차의 異名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늦게 딴 차’를 의미하는 단어가 되어 갔다²⁴⁾.

-
- ① 湯液 [苦茶] 早採爲茶 晚採爲茗…… 茗或曰菴 葉老者也.
 - ② 頭 單方 [茶] 臘茶也 能清利頭目 煎湯常飲之 茗葉同功<本草>
-

표 5 茗이 ‘늦게 딴 차’임을 나타내는 경우

『東醫寶鑑』도 『茶經』에서 차의 이명으로 쓰인 茗을 인용하긴 하였지만 분명하게 茗을 “늦게 채취한 차”로 정의하고 있다(①). 또한 ②는 “茶는 臘茶인데…茗도 같은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茗이 臘茶(細茶)와는 구별되는 다른 것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문장이다. 즉 茶와 茗을 비교하면 茶는 일찍 채취한 찻잎으로 만든 것이고 茗은 늦게 채취한 잎으로 만든 차인 것이다.

2) 細茶와 茗의 활용 비교

① 細茶는 주로 복용하는 처방의 구성약재로 사용되었다

『東醫寶鑑』의 저자는 細茶와 茗을 구별하는데 그치지 않고 효능의 차이를 두어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였다. 복용하는 용도의 차 처방²⁵⁾에 사용된 차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 22) 논자가 菴·檜·藪을 고찰하지 않는 이유는 『茶經』의 문구가 그대로 인용된 이외에 언급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 23)茗은 춘추시대 말기 제나라의 재상 안영(?~BC500)의 언행을 기록한 晏子春秋서 차를 지칭하는 단어로 처음 쓰였다고 한다(王從仁, 『중국의 차문화』, 에디터, 2004, p34). 아직 차가 널리 음용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茶를 의미하였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茗字는 茶字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있었음을 의미하며 적어도 『茶經』이 나오기 이전부터 차를 지칭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었음에는 틀림없다.
 - 24)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證類本草』 [茗·苦茶] : 今呼早採者爲茶 晚取者爲茗 茗菴蜀人謂之苦茶是也.
 『本草衍義』 [茗苦茶] : 郭璞曰: 早採爲茶, 晚採爲茗. 茗, 或曰菴(尺究切) 葉老者也.
 『本草蒙筌』 [茶茗] : 晚採粗者曰茗.

처방 위치	주치(효능)·처방명	茶名·용법
大便 [噤口痢] 大便 [疫痢] 眼 [外障] 咽喉 [單乳蛾雙乳蛾喉痺] 咳嗽 [風寒喘] 黃疸 [穀疸] 諸瘡 [天疱瘡] 解毒 [救諸中毒方] 小兒 [天吊驚風] 頭 單方 [茶] 內傷 단방[茶]	開噤湯 薑茶湯 臘茶飲 如聖勝金錠 五虎湯 紫金丹 香鱉湯 菌蕈毒 通治百物毒 九龍控涎散 能清利頭目 消宿食	細茶 / 春茶 / 老生薑 春茶葉等分 芽茶 / 一錢 臘茶 / 細茶 / 一撮 蠟茶末 / 二兩 細茶 / 五錢 細茶芽 / 細茶 / 白礬 每取三錢 臘茶 / 二錢 臘茶 / 煎湯常飲之 茗葉同功 茶·雀舌茶 / 溫煖飲之

표 6 복용하는 용도의 차 처방

위의 표에서 차가 포함된 처방 중에 복용하는 용도로 사용된 곳에는 예외 없이 어린잎으로 만든 차만 쓰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늙은 잎으로 만든 차는 복용하는 용도의 차로 사용되지 않는다.

② 茗은 차의 苦味를 강하게 활용할 경우에 주로 사용되었다

『東醫寶鑑』에서 茗이 사용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茶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경우 : 水 [井華水] 每日取以烹春茗而爲清利頭目最佳
② 臘茶와 같은 효력이 있음 : 頭 [茶]臘茶也能清利頭目煎湯常飲之 茗葉同功<本草>
③ 吐法에 사용하는 경우 : 頭 [吐法] 卒頭痛如破非冷非風是胸膈有痰厥氣上衝所致名爲厥頭痛吐之即差 單煮茗飲一二升須與吐吐畢又飲 : 吐 [茶] 能吐人取茗煎湯多飲探吐之<本草>
④ 濃煎하여 입을 씻어내는 경우 : 牙齒 [齒衄][又方]又濃煎茗湯含漱皆妙<本草>
⑤ 威靈仙과 配伍禁忌의 경우 : 湯液 [服藥禁忌] 威靈仙忌茗及麪湯

표 7 茗이 사용된 경우

①, ②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③은 吐法에 茗이 2회 사용된 경우이다. 차는 구토치료제로도 쓰였지만²⁶⁾ 吐法에 더

25) 『東醫寶鑑』에서 차는 ①복용하는 용도의 처방의 구성약재로 사용하는 경우, ②토하는 용도의 처방에 사용하는 경우, ③다른 처방을 복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④외용하는 처방의 구성약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②③④의 경우는 여기서 제외 한다.

26) 차의 대표적인 효능 중의 하나는 味甘苦無毒하여 下氣消宿食하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下氣시키는 성질

자주 사용되었는데,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細茶와 같은 어린 차잎으로 만든 차가 쓰인 경우는 없다. 이 경우에는 茶末을 직접 복용하거나 늙은 차잎으로 만든 茗을 썼다.

『本草綱目』에 따르면 차에 원래 上升하는 성질이 있어 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酸苦涌泄하는 뜻을 이용한 것이라 한다²⁷⁾. 이를 통해 吐法에 茗을 사용한 것은 茗이 細茶보다 苦味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④는 齒齲이 있을 때 茗을 외용하는 경우이다. 牙齒의 질환에 차를 외용하는 경우는 두 번이 더 있다. ‘茗’이 차이름으로 쓰이지는 않았지만 [修養固齒法]에서 “蓋齒性便苦緣 此漸堅牢而齒蠹且自去矣”라 하여 차의 苦味를 이용하여 치아를 단단하게 한 처방임을 명시하고 있다. ④의 경우도 苦味를 강하게 이용하기 위해 茗을 쓴 것이다.

牙齒 [修養固齒法]

凡飲食訖輒 以濃茶漱口煩膩既去而脾胃不知 凡肉之在齒得茶漱滌不覺脫去而不煩挑剔也。蓋齒性便苦緣 此漸堅牢而齒蠹且自去矣。

牙齒 [齒病塗擦方] [擦牙止痛方]

黃蠶蜂窠一箇以川椒填滿其竅更以白鹽一錢封口燒存性入 白芷 羊脛骨灰各一錢同研爲末 先以茶清漱口乃擦之 有孔則以藥塞其孔立愈。

표 8 牙齒 질환에 차를 외용하는 경우

⑤의 威靈仙과의 配伍禁忌에 관한 내용이다. 어린잎 차보다 늙은잎 차가 부작용을 잘 유발한다는 내용을 『本草從新』에서 찾아볼 수 있다. 『本草從新』[茶] 조문에 술 마신 후에 차를 마시는 것을 주의시키는 글의 뒤에 “味甘而細者良”이라 하여 단맛이 나고 어린잎으로 만든 차가 더 낫다고 하였다. 덧붙여 粗惡苦澁한 차는 不利脾胃하고 많이 먹으면 사람을 누렇게 마르게 하지만 上品은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²⁸⁾. 상품은 細茶를 뜻한다.

금기를 설명하면서 茶를 쓰지 않고 굳이 茗을 쓴 것은 늙은 잎차가 苦味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3. 『東醫寶鑑』에 나타난 차의 활용

이 강해서 구토를 멈추게 한 예를 『東醫寶鑑』 구토 [噎膈反胃治法]에서 찾을 수 있다.

[神仙奪命丸]治氣鬱嘔吐 或噎食不下 ……每嚙一丸 以茶泡熱餅壓下 良久不吐乃藥之效

[奪命丹]治反胃 有起死回生之攻 藜一箇 麝香一分 孩兒茶二分 金絲黃礬三分 朱砂春二分夏四分秋六分冬八分

27) 李時珍, 『本草綱目』, 醫聖堂, 1993.

茗: 又濃茶能令人吐, 乃酸苦湧泄爲陰之義, 非其性能升也.

28) 『本草從新』: 酒後飲茶 引入膀胱腎經 患癢痲水腫 空心尤忌 味甘而細者良. 茶稟天地至清之氣 產於瘠砂之間 韻感雲露之滋 培不受纖塵之滓穢 故能清心滌腸胃爲清貴之品. 昔人多言其苦寒不利脾胃及多食發黃消瘦之說 此皆語其粗惡苦澁者爾 故入藥須擇上品方有利益.

1) 丸·散劑를 복용하는 용도로 쓰인 차

『東醫寶鑑』에서 차는 처방의 구성약물 보다는 환이나 산제를 복용하는 용도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茶淸 92회, 茶湯 4회, 濃茶 5회, (生)蔥茶(淸) 5회, 冷茶(淸) 4회, 溫茶 3회, 熱茶 1회, 蜜茶 1회가 각각 쓰였다.

이 중에는 환·산제를 복용하는 용도 외에 입안을 씻어내거나 외용으로 바르는 경우, 약재를 법제하는 경우에 쓰인 경우도 일부 있으나 기본적으로 차를 액체 상태로 사용하는 방법에 속한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경우로 茶淸과 茶湯에 대해 고찰해 보겠다.

① 茶淸을 주로 사용한다(熱茶, 溫茶, 冷茶, 蔥茶를 포함)

『東醫寶鑑』에서 차와 함께 복용하는 약들은 대부분 “茶淸”과 함께 먹는다. ~淸은 茶淸 뿐만 아니라 酒淸²⁹⁾ 등으로도 쓰이는데 액체의 뒤에 붙어서 쓰여서 “맑다”는 뜻을 더해준다. 특히 “茶”와 조합되어 많이 사용된다. 『東醫寶鑑』에는 처방을 복용하는 용도로 쓰인 것은 茶淸, 蔥茶淸, 冷茶淸, 茶酒淸이 보이고 『醫方類聚』에는 荊芥茶淸, 生薑茶淸 등 더 많은 예가 기록되어 있다.

茶淸을 “맑은 차”라고해서 현재 우리가 차를 마시는 방법대로 끓인 물에 차를 넣어 우려낸 차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조선중기에도 차를 우려서 마시는 泡茶法이 있었지만, 끓는 물에 차를 넣어 잠시 더 끓여내어 차를 걸러내고 마시는 煮茶法이 더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끓여낸 차와 우려낸 차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데 조선시대 초기의 언해본 의서와 許浚이 저작한 언해본 의서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조선 초에 간행된 『救急簡易方諺解(1489)』의 傷寒時疫에 “熱蔥茶淸”을 “파와차와글힌더은물(파와 차를 끓인 더운물)”로, “臘茶淸”을 “셋드래쁜 작설차물”로 언해한 조문이 보인다. 『東醫寶鑑』과 거의 같은 시대에 간행된 『諺解痘瘡集要(1608)』의 痘後腎膜 조문에는 “茶淸調下”가 “차달힌물에풀어머기면”으로 언해되어 “茶淸”이 “차 달인물”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6세기 이후에 간행된 『諺解臘藥症治方』에는 “茶淸下”가 “물근차의느리오”로 되어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언해본 의서의 종류와 茶淸의 언해	茶淸의 해석
『救急簡易方諺解 ³⁰⁾ 』(1489) 熱蔥茶淸 - 파와차와글힌더은물 臘茶淸 - 셋드래쁜 작설차물	차를 끓인 물 차물

29) 『舟村新方』 舟村新方全 諸傷積年土疾 民魚生膽 和溫酒淸晨吸一盃
『保養志』 권5 服食 藥餌 [滋補藥餌諸方] 五重膏 俗方治虛勞有效 …… 胡麻油燒酒淸 醬各一升 以鍤銅盥水器覆之……

의서 외에서도 맑은 술을 뜻하는 예를 찾을 수 있다.
『續東文選』 제4권 七言古詩 ▶ 春愁(徐居正) : …… 我願春江變作春酒淸 ……
『靑莊館全書』 제1권 嬰處詩稿一, 苦熱行 : …… 既無碧筍酒淸澄 ……

30) 『救急簡易方諺解』 傷寒時疫 (한의학지식정보자원 웹사이트, 한국한의학연구원)

『診解痘瘡集要 ³¹⁾ 』(1608 허준 저작) 茶淸 - 차달힌물	차 달인 물
『診解臘藥症治方 ³²⁾ 』(허준 저작으로 추정됨) 茶淸 - 들근차	맑은 차

표 9 조선시대 언해본 의서에 기재된 茶淸의 언해

“차물”과 “맑은 차”로는 판단이 되지 않지만 “차를 끓인 물”과 “차 달인 물”에서 조선 초부터 허준이 활동했던 시대까지 茶淸은 “끓는 물에 차를 넣고 잠시 더 끓여낸 맑은 차”임을 알 수 있다. 다만 후대로 갈수록 泡茶法이 성행하기 시작하면서 18세기에는 끓인 물에 우려마시는 것이 차를 마시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잡았다. 조선 중기 이후부터는 우려낸 차 역시 茶淸으로 기록되고 있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② 茶湯은 茶淸과 같은 것을 지칭한다

『東醫寶鑑』의 茶湯은 환제를 복용하는 경우 3회, 산제를 복용하는 경우 1회가 나온다. 茶湯은 茶淸과 같은 의미로 대부분 사용되지만 茶湯은 “액체상태의 차”를 다 지칭할 수 있는 포괄적인 단어이다. 그 예로 조선 숙종 때 申維翰이 일본 通信使의 일행으로 다녀오면서 견문한 것을 기록한 책인 『海遊錄』의 문견잡록(附聞見雜錄)에는 가루를 타서 마시는 차와 잎을 끓여서 먹는 차 모두를 茶湯이라고 적고 있다³³⁾. 뿐만 아니라 궁중에서 승농을 높여 茶湯이라고 한 예도 있다³⁴⁾.

하지만 조선시대 중기까지의 飲茶文化를 살펴볼 때 茶湯은 “차잎을 끓여낸 맑은 차”의 의미로 가장 많이 쓰였다. “차를 끓여내어 맑게 마시는 것”은 煮茶法으로 조선중기까지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었으며, 이렇게 끓여낸 차를 대부분 “茶湯”이라고 불렀기 때문이다³⁵⁾. 즉 의서에서 사용된 대부분의 경우에 茶湯은 茶淸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31) 『診解痘瘡集要』痘後醫膜 (한의학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 한국한의학연구원)

32) 『診解臘藥症治方』解毒雄黃元 (한의학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 한국한의학연구원)

33) 『海遊錄』下 附聞見雜錄 (민족문화추진회 고전국역총서DB, 민족문화추진회)

……(일본)궁중에 귀하고 천한 남녀가 하나도 물을 마시는 법이 없고 반드시 다탕(茶湯)을 마신다. ……가늘게 가루를 만들어 더운 물에 타서 마시고 혹은 긴 잎으로 더운 물에 끓여서 찌꺼기를 건지고 마시는데, 매양 식후에 반드시 한 사발씩 들이킨다. …… (……國中貴賤男女。無一飲水之法。而必飲茶湯。……而或取青芽。搗乾細末。溫湯調飲。或以長葉煮湯。去滓而飲。每食後必健倒一盃。……)

34) 古典國譯叢書, (민족문화추진회 고전국역총서DB, 민족문화추진회)

『湛軒書』內集 1권 家禮問疑 祝文式 : 茶湯을 설한다 - 주인이 위 앞에 나아가 국을 철하고 熟湯(승농)을 드리고 匙를 승농에 담그고 자리에 돌아와 조금 기다린다.

『國譯承政院日記』 고종 22년 을유(1885, 광서 11) 6월 10일(정축) : …홍문관 부수찬 李晚正의 상소를 보니, ‘신의 아버지는 올해 76세입니다. 병이 항상 따라다녀 잠시도 茶湯이 끓겨서는 안 되는데, 생계를 꾸려 나가는 것이 영성하여 ……’

35) 鄭英善, 『고려의 차에 관한 연구』, 한국차문화학회지 4 63, 1988.

③ 차의 효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차의 용법을 단순히 약을 삼키기 위한 부수적인 용도로 여긴다면 물보다 술이 더 자주 사용되고 薑湯, 蔥茶淸, 溫茶, 冷茶 등이 다양하게 사용된 사실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차로 丸·散劑를 복용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각 문별로 茶淸과 茶湯이 사용된 횟수를 분석해 보았다.

內景篇	外形篇	雜病篇
		風 3
		暑 1
		內傷 3
		咳嗽 5
神 1	頭 22	皮 2
血 1	眼 13	足 2
聲音 1	耳 2	積聚 2
言語 1	鼻 3	浮腫 1
痰飲 5	口 1	黃疸 1
蟲 3	咽喉 4	瘡疾 1
大便 4	胸 2	癰疽 1
		諸瘡 11
		解毒 2
		婦人 1
		小兒 2

표 10 차와 함께 복용한 처방 수(단방 포함)

첫째, 頭目과 皮部로 藥力을 끌고 가는 引經藥의 역할을 한다. 外形篇의 사용 예를 볼 때 瘡환이 胸 이하의 부위에 있는 경우에는 茶淸과 茶湯이 쓰이지 않는다. 특히 頭門과 眼門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었다. 차가 처방의 藥力을 頭目부위로 끌고 가는 引經藥으로 이용한 것이다. 雜病篇에서는 諸瘡門에 11회나 쓰였는데 瘡은 피부에 생기는 瘡환이므로 차와 함께 복용해서 치료효과를 높인 것이다.

둘째, 차를 처방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복용한 것은 頭目과 瘡을 치료하는 차의 효능을 극대화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라고도 볼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차는 淸利頭目하고 瘡을 치료하는 것이 바로 차의 대표적인 효능이 된다.

3) 外用하는 용도의 차

차를 외용하는 경우는 대부분 瘡 瘡환이다. ①차 단독으로 외용하는 경우, ②차 복합방을 외용하는 경우, ③외용약을 사용하기 전에 환부를 씻어내는 용도로 차가 쓰인 경우로

나누어 보았다.

처방·위치	주치	활용 방법
① 차 단독으로 외용하는 경우		
牙齒 [修養固齒法] 足 [甲疽瘡] 諸傷 [諸蟲傷]	齒蠹 甲疽瘡 蝨蟻咬	濃茶 / 漱口煩膩既去而脾胃不知 細茶 / 嚼爛付之 老茶葉 / 細末油調付
② 차 복합방을 외용하는 경우		
[外用처방 속에 茶가 포함됨] 諸瘡[有名無名諸惡瘡] 一掃光 諸瘡 [洗藥方]	治小兒頭瘡 洗諸般惡瘡毒	細茶 / 爲末 油調擦上 細茶 / 濃煎湯入鹽頻洗
[散劑에 茶淸을 섞어 바름] 癰疽 [癰疽糝貼法] 洪寶膏 諸瘡 [殺虫方]	治一切腫毒散血消膿 諸瘡殺虫	茶淸 / 茶調塗患處 乾則換新 茶淸 / 右爲末 茶淸調塗
③ 외용약을 사용하기 전에 환부를 씻어내는 용도로 차가 쓰인 경우		
牙齒 [擦牙止痛方] 諸瘡 [膿瘡][瘰癧土膏] 諸瘡 [薰洗方] 小兒 [痘後雜病] [搽牙散]	齒病 治外膿瘡久年 治膿瘡臭爛 痘後雜病	先以茶淸漱口 乃擦之 先以茶淸洗 後油紙攤藥貼之 或茶淸 淋洗挹乾後 乃貼膏藥 先以韭菜根老茶濃煎水鷄羽蘸 洗去腐爛惡肉至見鮮血乃付藥

표 11 차를 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① 차를 단독으로 외용하는 경우는 茶淸을 진하게 끓여낸 濃茶로 씻어 내는 방법, 細茶를 찢어서 붙이는 방법, 老茶葉을 가루내어 기름을 섞어 바르는 방법이 한 번씩 소개되었다.

② 차 복합방을 외용하는 경우는 외용 처방 속에 차가 포함되는 경우와 散형태의 처방을 茶淸에 섞어서 바르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외용처방에 차가 포함된 경우는 모두 細茶가 사용되었다.

③ 外用藥을 사용하기 전에 환부를 씻어내는 용도로 차가 쓰인 경우도 적지 않다. 모두 茶淸을 이용해 씻어내었다. 이는 차가 환부를 청결하게하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汚毒을 씻어내는 효과가 있음을 나타낸다.

차를 외용하는 경우에는 細茶과 老茶가 모두 사용되었으며 차와 차 가루, 茶淸의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東醫寶鑑』의 차와 질병

1) 차의 금기

① 陰血을 소모시킬 우려가 있는 약제와의 배오를 삼가 한다

차와 배오를 꺼리는 약제는 湯液編 [服藥禁忌] 威靈仙이 있다.

湯液 [服藥禁忌] 威靈仙忌茗及麪湯

표 12 위령선과 차의 배오금기

『東醫寶鑑』 뿐 아니라 다른 본초서에서도 威靈仙을 복용할 때에는 차를 마시지 말라는 내용이 있다³⁶⁾. 威靈仙은 『東醫寶鑑』에 心膈痰水, 癥瘕疝癖, 膀胱宿膿惡水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 약으로 성질이 善走하기 때문에 “虛者切禁用之 多服疏人真氣³⁷⁾”하고 “大走真氣 耗人血不得已而用之可也³⁸⁾”라 하여 虛弱者나 血虛者에게는 주의해서 써야만 하는 약이다.

『本草從新』은 약물의 配伍禁忌에 관한 내용이 상세하다. 그 중에 차를 배오 금기로 하고 있는 약제로 常山, 土茯苓, 葶藶, 威靈仙을 꼽고 있다. 이 약제들은 모두가 虛者, 특히 肝腎陰血虛者는 금하거나 주의해서 복용하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차는 肝腎陰血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약제와 배오금기인 것을 알 수 있다.

本草名	配伍禁忌	服藥禁忌
常山 土茯苓 葶藶 威靈仙	忌蔥茗 忌茶 忌茗醋 忌茶茗麵	性猛烈施之藿食者多效 若肉食之人 稍稍挾虛 不可輕入 淡滲傷陰 肝腎陰虧者勿服 陰虛火熾 溺有餘瀝 及無濕而腎虛腰痛者 皆禁 大走真氣 耗人血不得已而用之可也

표 13 『本草從新』 차를 배오금기로 삼는 약제

② 陰血虛者에게는 주의해야 한다

婦人經血의 경우도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婦人經血은 虛勞(房勞)로 인한 陰虛熱(陰熱)을 치료하는데 가장 좋다고 하였다. 표10에서도 虛勞로 氣血이 고갈되어 ‘몸이 마르고 곧 죽을 것 같은 사람(勞瘦幾死者)’에게 썼는데 즉 부인경혈은 陰血虛로 인한 發熱이 있는 것(陰熱)을 치료하는 약이다.

雜病 [虛勞] 단방 婦人經血 :

治勞瘦幾死者 取室女無病者月經一盞 二三次取之 和童男三母乳半盞 和之於淨室中 服之後發熱作渴不可飲茶·湯·酒 取人乳汁飲之 經旬至一月後方可食烟火食 忌用心<種杏>

湯液 [婦人月水] 계집의월경수 解毒箭并女勞復……治陰熱最佳<俗方>

표 14 부인경혈의 활용

36) 『證類本草』 [威靈仙] …… 忌茗 …… 其性甚善不觸諸藥 但惡茶及麪湯 以甘草梔子代飲可也.
『本草綱目』 [威靈仙] …… 但惡茶及麪湯.
『本草蒙筌』 [威靈仙] …… 忌茗面湯..
『本草從新』 [威靈仙] …… 忌茶茗麵..

37) 明 陳嘉謨, 『本草蒙筌』, 人民衛生出版社, 1988.

38) 『本草從新』

복용한 후 열이 나고 갈증이 날 때(服之後發熱作渴)는 미처 陰血이 다 채워지지 않아 陰熱가 남아 있는 때이므로 血을 상할 염려가 있어 차를 금한 것이다³⁹⁾.

결국 차는 常山, 土茯苓, 萆薢, 威靈仙의 약재들과 함께 사용하면 傷肝腎陰血 할 수 있고 陰血虛가 심한 상태의 환자에게는 주의해서 사용해야하는 약재라 볼 수 있다.

③ 질병 금기의 경우

천포창과 소아두창에 삼가야 하는 항목으로 차가 들어 있다.

雜病篇 諸瘡 天疱瘡
[禁忌法] 天疱楊梅瘡 忌食牛·馬·狗肉·鷄·猪·魚·生冷及酒·麪·茶·油膩·辛熱等物 痛斷酒色 鹽宜炒食<回春>
雜病篇 小兒 飲食
痘瘡忌食生冷·肥膩·鹽鹹·茶·醋·酒·葱·蒜·魚·羊肉·猪肝血·柿·棗·飴糖 特忌鷄·鵝·鴨卵烹食 令兒目盲<入門>

표 15 차의 질병 금기의 경우

두 경우에 금기시 하는 음식들은 차이가 있지만 음식 중에서 性味가 비교적 편향되어 있는 것들을 알 수 있다. 병으로 몸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음식물을 섭취할 경우

④ 氣脫의 우려가 있거나 酒毒이 풀리지 않은 경우의 금기

배오금기와 질병에 관한 금기는 환자에게의 금기이다. 건강한 사람이 차를 음료로 음용하는 경우에도 역시 주의점이 필요하다. 『東醫寶鑑』에는 공복시와 술이 취한 이후에 차를 마시지 말라는 금기가 있다.

內景篇 [身形] 先賢格言
常眞子養生文曰 …… 腹空莫放茶穿.
雜病篇 [內傷] 飲酒禁忌
……當酒未醒大渴之際 不可喫水及啜茶多 被酒引入腎藏 爲停毒之水 令腰脚重墜膀胱冷痛兼水腫消渴攣蹙之疾<活人心>

표 16 차의 일반적인 금기의 경우

먼저, 身形門에 양생의 방법 중에 공복에는 차를 마시지 말라고 하였다. 차는 下氣消宿食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공복에 많이 먹게 되면 더욱 공복감이 심해지고 氣脫하게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차는 苦寒하여 下氣시키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虛實을 나누어 보면 實한 경우에

39) 차는 降火하여 淸利頭目하는 효과가 있지만 陰血虛한 상태에서 차를 마시면 화를 이끌고 心에 들어가 경계·정충·불면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本草綱目』에는 차는 實熱이 있는 경우에 心肺脾胃의 熱이 매우 성할 경우에 써야 한다고 하였고, 『本草從新』에는 차를 마시면 心을 伐하기 때문에 잠을 깬다고 하여 心血을 상할 수 있음 경고하고 있다.

쓰는 약에 속한다. 『本草綱目』에서는 “火는 虛實이 있는데 젊고 건강한 위를 가진 사람이 心肺脾胃에 火가 많고 盛한 경우에 차가 가장 알맞다”⁴⁰⁾고 하였다. 이 때문에 공복에 차를 많이 마시게 되면 더욱 虛한 상태가 되어 병을 얻을 수도 있다.

둘째, 술을 마신 후의 금기는 더 자세하다. “술이 아직 깨지 않아 갈증이 심할 경우에는 물과 차를 많이 마시면 안된다. 술에 의해 腎臟으로 이끌려 들어가 허리와 다리가 무겁고 膀胱을 冷痛하게 하며 水腫·消渴이 생기게 하고 얇은땀이 되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차는 오래전부터 『東醫寶鑑』을 포함한 많은 의서에서 醒酒의 효능을 가진 약재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⁴¹⁾. 이는 음료로 마시는 차에 대한 금기를 기록하고 있고 약으로써의 차를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약으로써의 차는 분명히 醒酒의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술로 인한 갈증을 풀기위해 물마시듯 차를 마시는 것은 술로 인해 생긴 毒氣를 갑자기 腎臟으로 몰리게 해서 병이 생기게 할 수 있다. 『東醫寶鑑』 음주금기에서 “不可喫水及啜茶多”와 같이 물 마시는 행위와 차 마시는 행위를 같이 언급하는 것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 차의 남용

『東醫寶鑑』에서 차가 원인이 될 수 있는 질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차는 苦寒한 성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료로 항상 마시거나 신체가 건강하지 않을 때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차가 痰·積을 생기게 해서 병을 일으키는 경우이다.

질병명 : 위치	병인	증상
①차가 苦寒하기 때문에 생기는 병의 경우		
面寒證 : 面[面寒] 吐瀉霍亂 : 暑[暑熱通治藥] 陰水腫 : 浮腫[浮腫形證]	年高素食茶果陽明之氣不能上榮 夏月多食冷物過飲茶水·水漿致傷脾胃 飲水及茶酒飢飽勞役房勞	不美嘔吐酸水 吐瀉霍亂 先腫下體腰腹脛跗身涼 大便利

②茶痰·茶積을 생기게 하는 경우

40) 『本草綱目』[時珍曰]茶苦而寒. 陰中之陰. 沈也降也. 最能降火. 火爲百病. 火降則上清矣. 然火有五火. 有虛實. 若少壯胃健之人. 心肺脾胃之火多盛. 故與茶相宜.

41) 『東醫寶鑑』[醒酒令不醉] 一方 青皮炒二兩 葛根一兩 縮砂五錢 右爲細末 濃茶調一二錢服之 能醒酒消食 <丹心> [龍腦湯]腥酒消食 縮砂二兩 甘草一兩半 右爲末每半錢或一錢 茶清下<壽域>
『本草綱目』楊士瀛曰 薑茶治痢. 薑助陽. 茶助陰. 並能消暑解酒食毒.
『本草從新』茶 : 解酒食油膩燒炙之毒 與薑等分濃煎名薑茶飲治赤白痢 茶助陰薑助陽使寒熱平調並能消暑解酒食毒

酒痰 : 痰飲[酒痰]	因飲酒不消或酒後多飲茶水	但得酒次日又吐飲食
茶痰 : 咳嗽[人參半夏丸]		
茶積 : 諸物傷成積[茶積]	喜吃茶成積成癖	飲食減少 面黃 腹痛

표 17 차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질병들

Ⅲ. 결론

본 논문은 『東醫寶鑑』에 나타난 차와 차의 종류, 차의 활용 방법을 대상으로 하여 朝鮮中期醫學 한약재로써 차의 모습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이다.

향약으로써의 차, 차의 종류, 다양한 활용 방법, 차의 금기의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연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東醫寶鑑』의 ‘茶’는 “차잎으로 만든 약재의 고형제재(분말을 포함) 및 액상 추출물”이며 “치료와 양생, 그리고 금기 등 한의학의 기준이 적용되는 특징을 가진 한약재”이다.
2. 우리나라 最古의 의서인 『鄉藥救急方』에 차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13세기 이전부터 茶는 鄉藥으로 사용되었다.
3. 『東醫寶鑑』은 『鄉藥集成方』으로 집대성된 鄉藥醫學의 맥을 이어가고 있으며, ‘苦茶’를 鄉藥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東醫寶鑑』포함한 朝鮮中期醫學에서 약재로 쓰인 차는 鄉藥이다.
4. 『東醫寶鑑』에서는 차를 細茶(어린잎으로 만든 차), 茗(늙은 잎으로 만든 차)의 두 가지로 분류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대체적으로 立夏를 전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의학적으로 사용된 茗이 해를 넘긴 차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
5. 『東醫寶鑑』은 차의 종류에 따라 그 쓰임을 특화시켜 사용하고 있다. 복용하는 용도의 처방에는 細茶가, 차의 苦味를 강하게 이용하는 경우나 금기의 경우에는 茗이 주로 사용되었다.
6. 丸·散劑를 복용하는 용도로 쓰인 茶淸과 茶湯은 같은 뜻으로, 모두 “끓는 물에 차를 넣고 잠시 더 끓여낸 맑은 차”를 의미한다.
7. 丸·散劑를 복용하는 용도로 쓰인 차는 약력을 상부로 이끌고 가는 引經藥의 역할을 하고 동시에 차의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다.
8. 『東醫寶鑑』에서는 차가 배오하는 약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 陰血을 소모시킬 수 있는 약재로 보았다. 그래서 陰血을 소모시킬 수 있는 약재, 또는 陰血이 보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약재와는 배오 금기로 주의하고 있다.

한의학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었던 차가 현재는 사용범위가 많이 좁아진 상태이다. 이는 비단 차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한약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후 차에 대한 연구의 방향은 처방 분석을 통한 차의 효능에 관한 연구와 현재 활용 가능한 차의 제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약재 전체의 측면에서는 개개의 약재에 대한 한의학적인 연구를 심화하여 역사적인 근거를 찾아내고 새로운 활용방법을 개발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원전류>

- 許浚, 『東醫寶鑑』 (남산당, 1975)
金富軾, 『元本 三國史記』 (한길사, 1998)
韓繼喜·任元濬·權讚 등, 『原文 醫方類聚』 (여강출판사, 1994)
宋 唐慎微, 『中國醫學大系8 證類本草』 (麗江出版社,)
宋 寇宗奭, 『本草衍義』 (人民衛生出版社, 1990)
明 陳嘉謨, 『本草蒙筌』 (人民衛生出版社, 1988)
明 李時珍, 『本草綱目』 (醫聖堂, 1993)
清, 吳儀洛, 『本草從新』 (天津科學技術, 1995)
清 汪昂, 『本草備要』 (中國中醫藥, 1999)
張瑞賢, 『本草名著集成』 (華夏出版社, 1998)

<저술류>

- 王從仁, 중국의 차문화(에디터, 2004)
鄭英善, 한국차문화(너럭바위, 1998)
金明培, 다도학(학문사, 1994)

<자료 및 사전류>

-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 (<http://jisik.kiom.re.kr/>)
민족문화추진회, 민족문화추진회 고전국역총서DB (<http://www.minchu.or.kr/>)

<논문류>

- 姜延錫, 『鄉藥集成方』의 本草 분석을 통한 朝鮮前期 鄉藥醫學 연구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3. 2.)

梁榮竣, 『萬病回春』이 『東醫寶鑑』에 끼친 影響에 대한 연구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8. 2.)

金明培, 『韓中茶文化交流』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제3권 제2호, 1993)

李崇寧, 韓國茶의 文獻學的 研究 (서울대학교출판사, 1982)

鄭英善, 고려의 차에 관한 연구 (한국차문화학회지 4 63, 1988)